

시울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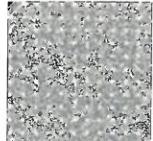
제2292호

2020년 7월 5일(가해)

연중 제14주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염수정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불성별한글 바코드



입당송 |

이 성인은 하느님의 법을 위해 죽기까지 싸웠으며, 악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않았네. 그는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네.

제1독서 | 2역대 24,18-22

화답송 | 시편 31(30),3ㄷㄹ-4,6과 7ㄴ과 8ㄱ,17과 21ㄱㄴ(◎ 6ㄱ 참조)

◎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

○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오로지 주님만 믿나이다.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 하리이다. ◎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당신 앞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 내소서. ◎

제2독서 | 로마 5,1-5

복음환호송 | 마태 5,10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음 | 마태 10,17-22

영성체송 | 마태 16,24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착한 목자 성 김대건 신부님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 | 서울대교구 총대리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요한 10,11) 착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닮은 목자를 보내주시어 교회를 보살펴주십니다. 착한 목자는 주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에서 그분의 사랑을 신자들에게 전합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도 그런 착한 목자셨습니다.

김 신부님은 1836년 4월에 15세의 나이로 모방 신부님에게 세례를 받고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그해 12월 고국을 떠나셨습니다. 면 길을 걸어 다음 해 6월 마카오에 도착, 사제 수업을 시작하여 1846년 9월 16일 새남터에서 순교 하실 때까지 수고와 어려움으로 점철된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오늘 제1독서의 즈카르야 예언자처럼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과 충절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려는 이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 도움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이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어, 환난 중에도 인내와 끈기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십니다(제2독서). 또한 성령께서는 주님께 대한 충절 때문에 박해 받는 이들에게 해야 할 말을 일러주십니다(복음).

김대건 신부님도 성령의 도움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혹독하게 문초하는 이들을 미워하지 않고 축복을 빌어주셨습니다. “관장께서 내가 천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당하게 해주시니 관장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천주님이 이런 은공을 갚고자

당신을 더 높은 관직에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형 직전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이끌려는 마음에서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나는 천주를 위해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은 후 행복을 찾으려면 천주를 믿으시오.”

주님께 대한 믿음과 충절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실천했던 김대건 신부님은 모든 신자들, 특별히 그분을 주보로 모시는 사제들에게 모범이 되십니다. 현대인들은 자아성취에는 열을 올리지만, 자신을 내어놓고 바치는 것은 많이 꺼립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어놓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본보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사제들이 그런 본보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성인 교황 바오로 6세가 1970년에 자신의 사제 수품 50주년을 맞아 바친 기도를 함께 바쳐 봅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는 사제들에게 넓은 마음을 주소서. 침묵 가운데 힘차게 타이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들으며, 온갖 불미한 야심과 덫없는 인간 경쟁을 전혀 모르는 마음, 거룩한 교회만을 걱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보려는 넓은 마음을 주소서. 어떠한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끝까지 항구하며, 그리스도의 심장과 고동을 같이하고, 겸손과 충실과 용기로 천주의 뜻을 실천하며, 거기서 유일한 행복을 찾는 넓고 강한 마음을 주소서.”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마태 10,22)

사진
설명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한 우리 선조들은 어려운 시대에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신앙을 지키다 순교하셨습니다. 모질고 거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며 굳건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비록 힘든 일일 수 있으나, 어려운 시절이 왔을 때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그때가 오기 전에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홍덕희 아녜스 | 가톨릭사진기획



나의 아주 오래된 냉담 해빙기

2019년 10월 27일. 드디어 마흔네 살에 받게 된 견진성사. 신앙인으로는 참어른이 된 뜻깊은 날이자, 개인적으로는 신앙 경력 단절 24년 만의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여름신앙학교도 꼬박꼬박 다니고, 미사 반주도 하고, 교리 경시대회에 나가 상도 받던 열혈 프란체스카는 너무 초반에 힘을 다 뺏던 탓일까요,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입시를 평계로 띄엄띄엄 나일론 신자의 수순을 밟다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냉담의 길을 걸으며 신앙의 번아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어느 날, 친한 후배가 오랜 고민 끝에 가톨릭으로 개종을 결심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며 대모가 되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프로그램 제목 짓는 것보다 더 심사숙고하며 세례명을 고르는 회의도 했고, 묵주 반지 디자인도 골라주며 온갖 오지랖 대잔치를 벌이던 중 엄청난 오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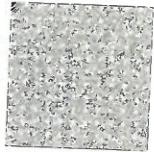
“언니, 대모님 되실 분 견진 증명서 받아오라는데?”

“대모님은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만 된대?”

“어릴 때 교리 경시대회 상 받은 거 맞아? 어떻게 나보다 더 모르냐….”

그렇습니다. 저는 견진성사를 받은 적이 없는, 애초에 대모의 자격을 갖추지도 못한 냉담자이자 심지어 그 사실도 후배한테 전해 듣고 알게 된 왕무식자였던 것입니다.

그날의 해프닝 이후, 후배한테 당한 망신으로부터 시작된 감정인지, 신앙을 끊고 지낸 세월의 공허함에서 온 건지 설명할 순 없었지만, 복잡하고도 묘한 각성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제 발로 성당을 찾아가 하느님과 어색한 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오래 헤어졌다 만난 옛 친구처럼 처음에는 쭈뼛쭈뼛하다 어느 순간 대화는 폭풍 수다로 이어졌습니다. 하느님과 잠시 헤어져 있는 동안 치열하게 살았



정다운 프란체스카 | 방송 작가

던 2·30대 이야기, 40대가 된 지금의 고민들,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틈날 때마다 미사를 드리고 묵고 또 물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시 하느님은 제 삶의 일부로 스며드셨습니다. 대모를 부탁했던 후배는 그사이에 세례를 받아서, 함께 견진 교리를 받게 되었고, 저는 교리를 들을수록 부족했던 신앙의 부분을 채워 나가며 더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분명 어린 시절 만났던 하느님과 지금의 하느님이 다른 분은 아니실 텐데… 왜 지금이 더 가깝고 평온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제가 만난 하느님은 그 옛날 왕성한 신앙 활동을 할 때 흐뭇하게 저를 보셨던 분일 뿐만 아니라,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심지어 미사를 멀리하며 냉담 중일 때도, 힘겹게 돌아돌아 24년 만에 찾아가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 하느님이셨습니다. 어찌 보면 세례는 제 의지 없이 그저 주어진 거였지만, 이제는 ‘때가 이르러’ 인간적으로 성장하고, 자기 내면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내공을 갖춘 어른 프란체스카를 하느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것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없이 너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너 없이 너를 구원하지 않으신다.”(성 아우구스티노)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아는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 5:3

권윤혜 로사
월곡동성당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바보의나눔'이 함께하는 국내외 원조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여성 지적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 의령 사랑의집 ”

“다른 언니들처럼 국제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서 세계인들과 함께 달리고 싶어요.”, “유명한 제빵사가 되고 싶어요.”, “축구 연습 열심히 해서 손흥민처럼 훌륭한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지금도 다양한 활동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그녀들이 들려주는 장래 희망은 구체적이고 특별합니다.

전국 최초로 창단된 여성 지적장애인 축구단 ‘의령꽃미녀 FC’ 선수들, 여성 지적장애인 핸드벨 연주단 ‘소리샘밸콰이어’ 단원들, 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마라톤 동아리 ‘진달래회’ 회원들은 모두 경남 의령에 있는 여성 지적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인 의령 ‘사랑의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적장애인들의 올림픽 무대인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에 국가대표 축구 선수로 참가하여 은메달을 획득하였고, 평창에서 개최된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폐막식 오프닝 공연에서 핸드벨을 연주하였으며, 매년 대한민국 장애인 선수단으로 선발되어 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등 다양하고 훌륭한 활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의집’은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마산교구 사회복지회 소속으로 1급에서 3급의 여성 지적장애인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정서 함양, 사회적응과 적극적인 참여, 자존감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돋고 싶지만, 필요한 모든 활동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녹록지 않은 실립살이로 경제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데 뭐가 걱정



이냐고. 하지만 복지예산을 사회적 투자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사회적 소비로 인식하는 경향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지역적 균형이 깨지고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복지예산 축소로 이어집니다. 경상남도에서 가장 작은 도시이면서, 재정 자립도 전국 188위인 의령군에 위치한 사랑의집은 운영비 확보를 위한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한계로 인해 필요한 예산 확보는 어렵기만 합니다.

단기 거주 시설은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인 관계로 17개 시도별 인력 및 운영비 지원 격차가 클 뿐 아니라 운영상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도 대응 방안과 다양한 정책적 방향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지만, 매번 편견과 소외의 벽에 부딪혀왔습니다.

지금은 종사자 2/3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턱없이 부족한 보조금과 열악한 지역적 환경이 톱니바퀴처럼 물려 시설 운영의 어려움은 사랑의집이 떠안아야 할 슬픈 운명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부족한 운영비는 후원금으로 충당하여야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힘든 경제사정으로 그나마 이어져 오던 기업들의 후원은 끊기고 개인 후원자분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 후원자마저도 매년 줄어들고 있어서 운영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한 꿈을 가진 그녀들은 사회와 소통하며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받고자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들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803-271075 (재)바보의나눔

2020년 7월4일~31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의령 사랑의집’을 위해 쓰여집니다.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홈페이지(cc.catholic.or.kr)에서 지난 사연 및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기부는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오늘(7월 5일)은 ‘연중 제14주일(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앤드레아 사제 순교자 신심 미사)’입니다

한국 교회는 순교자 현양을 위하여 이날을 ‘신심 1등급’으로 정하고, 주일과 겹치더라도 성대하게 거행하기로 하였습니다(주교회의 2019년 추계 정기 총회). 한국 최초의 사제가 되어, 순교로 한국 교회의 기초를 놓고 모든 성직자의 수호자가 되어주신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 신앙과 열정을 기억합시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50년 7월7일 이여구 마티아 신부(53세)
- 1952년 7월10일 정규량 레오 신부(69세)
- 1997년 7월12일 정옥진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78세)

한반도 평화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0년 11월28일까지 ‘한반도 평화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교구정일록

7월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때, 곳: 7월6일(월)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총회 및 후원회원 월례미사·해밀 가족모임

1)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총회 및 후원회원 월례미사
때: 7월6일(월) 오전 9시30분~12시30분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2)921-5094
2) ‘해밀’ 가족모임 안내
범죄로 인해 가족을 잃으신 분들을 위한 모임을 함께 합니다 / 문의: 02)921-5093

2021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모집
사제지망 일반예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녀 평신도를 모집합니다
지원구분: 고교졸업(예정)자, 대학수료자, 수도자, 만학도(1986년 2월28일 이전 출생)

모집전형: 잠재능력우수자전형, 가톨릭지도자 추천전형, 학교장추천전형, 농어촌학생전형
원서접수: 9월23일(수)~28일(월) 인터넷 접수

교리시험·면접: 11월27일(금)

문의: 02)740-9704, 9705

홈페이지: <http://songsin.catholic.ac.kr>

낙태 상처 치유 프로그램 및 미사

당분간 휴강하며, ‘거리두기’ 종료 후 재개합니다 / 문의: 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순교자현양신심미사

때: 매월 첫째주(화) 7월7일 · 8월4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 전례봉사자 모집: 02)727-2527

슬픔속 희망 찾기—유가족을 위한 미사 및 모임

대상: 자살로 소중한 이를 잃은 모든 분들
때: 매월 세번째(토) 7월18일 10시30분
곳: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 문의: 02)318-3079

2020년 영성심리상담교육원 교육 안내

내용: 가톨릭상담심리사 1, 2급
대상: 1급 또는 2급 교육수련을 원하는 4년제 학사 이상 가톨릭 신자 / 때: 과목별로 상이(9월~12월)
교육비: 과목 당 21만원 / 우리 1005-701-257842
(재)천주교서울대교구(입금자명: 신청급수, 이름)
신청기간: 7월17일까지 / 코로나 19로 ‘대면수업’은 ‘온라인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환경 전환될 수 있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셔야 수강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727-2126(tpce@seoul.catholic.kr)
신청방법: 홈페이지 가입 후 메뉴 - 회원전용 - 교육수련신청 상세내용 홈페이지(<http://seoulccpa.catholic.or.kr>) 참조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이승주 사진전: 제 1전시실

김윤희 한국화전: 제 2전시실

김지영 도예전: 제 3전시실

전시일정: 7월8일(수)~13일(월)

2021년 명동대성당 혼인예약 안내

1월~2월: 7월29일(수)부터 선착순 방문 접수(화~일)

3월~12월: 추후 혼인추첨 예정(추첨 일정 별도 공지)

장소	요일	시간
대성당	금요일	13시
	토요일, 공휴일	12시 · 15시

파밀리아 채플	토요일, 주일, 공휴일	11시 · 14시 · 16시
---------	--------------	-----------------

필수준비사항: ① 교적증명서 1부(신랑, 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50만원(현금 또는 수표 / 계좌이체 · 카드 불가)
혼인 비용은 2020년 7월 기준이므로 예약 이후 변동될 수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774-1784(내선 4번)

서울주보 알림 게재 신청

| 문화홍보국 홈페이지: <http://cc.catholic.kr> |

- ① 교회에서 인기받은 단체만 게재 가능합니다.
- ② 게재 월로부터 한 달 전 첫째 주 화요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가르멜 수도회	매월	지역별 장소	010-2140-7414
돈보스코 여자 재속회	수시	영등포구 신길6동 여의대방로65	0505-1306-1505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수시	본원 접견실	010-4241-1210
성심수녀회	7월18일(토) 14시~18시	소피아 기도의 집(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3993-0316 남궁영미 수녀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939-7970
한국외방선교회	8월2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서울주보 카카오톡 채널 개설

서울주보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발행되는
서울주보와 교구소식을 빠르
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주보 채널 QR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서울주보
신문 358면

천주교 서울대교구 서울주보 채널 추가 클릭!!



★ 교우끼리 거래는 간접 선교입니다. ★

성신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택 / 빌라 / 아파트 / 상가 / 토지 / 사무실 / 오피스텔
마포구 동교로 270(연남동)

☎ 332-4455, 010-3688-3132

대표 함경근 (다비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5다길 5
장평빌딩 1층 (창천동 72-5)

신촌점

Tel. (02) 326-3260

김형숙 (로사) ☎ 010-9470-5685

IMI 금속인테리어

Total Interior Group

리모델링, 상가주택, 원룸 (가정집, 아파트)
창호 (LG, 한화, 윤제, 하이센, 방범창) 패널, 철구조물 전문사공업체

☎ 324-6730, 010-3614-6432

대표 변경섭 (사도요한)

傳統 中華料理



서울시 서대문구 연의로 48-22
02-325-8985 (구 모전돼찌갈비)



한우 명가

국내산 한우의 자존심

서대문구 연희동 353-111

대우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 3143-6832, 010-8939-2198

대표 김경만 (베네딕토)

백세내과의원

소화기내과 · 건강검진센터

소화기질환 · 치아, 당뇨
간 질환 · 혈액 기질환
신장질환 · 종양건강검진
구강건강검진 · 5대암 검진

내과질환전문 · 국가암검진 · 건강보험공단 지정병원
■ 평일 : 오전 8:30 ~ 오후 6:00
■ 침상시간 : 오후 1:00 ~ 오후 2:00
■ 토요일 : 오전 8:30 ~ 오후 2:00
■ 일/공휴일 : 휴진
☎ 354-1088 (NC백화점 불광점 맞은편 대홍빌딩3F/4F)

원장 박남숙 베로니카

장한의원

02)335-1075

원장
장민형
(글라라)

자동차 사고보험/ 척추, 관절 통증/
비만/왕뜸/기혈순환치료/아로마치료

마포구 연남동 226-29, 2층(연남동 수협 밑, 동진부동산 2층)

연희신용협동조합

▣ 1인당 예적금 3,0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

▣ 행복한 내일을 위한 신협의 대출서비스

▣ 어려울때 힘이되는 실속 보험서비스

연희동본점 02-323-2636 홍제동지점 02-394-2636

아리따움 (ARITAUM)

한율, 아이오페, 라네즈, 마몽드, 오딧세이

사러가 쇼핑센터 내 2층

(아모레 화장품 전문점)

☎ 3273-5772, 010-9518-5004

대표 임정순 (마리아)



미래꽃백화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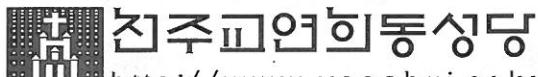
대표 : 김남현(베드로) HP: 010-3733-0200

T:1577-0035 F:02-3147-0035

www.theflowershop.co.kr

경조화환, 동서양란, 꽃바구니, 관엽화분

제2137호(성 바오로 사도 개종 축일)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 4451 FAX : 336-2233

주임신부 : 김찬희(세례자요한) 323-4456

부주임신부 : 박민재(미카엘) 323-4452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323-4453

연령회장 : 강명국(바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유 아 세례	흘수 달 첫째 주일 오후 5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디), 오전 11시 (교종)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오후 9시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8시, 화요일~금요일 : 06시, 10시, 19시, 토요일 : 06시	성체신심미사	매 월 첫째 금요일 오전 10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전례 »**◎ 부활 판공성사 관련 안내**

7월 5일, 7월 19일, 8월 2일, 8월 16일
매 미사에 공동고백 예식이 있습니다.

◎ 예비신자는 7월 26일(주일)까지 모집합니다.

교리반	교리 시작 날짜	장소
수요반	6월 24일(수) 오후 8시~	교육관
주일반	6월 28일(주일) 오전 9시~	304호

※ 교리재교육이 필요한 교우들도 함께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 공지 »**◎ 10명 이하의 소규모 단체·교육 및 모임만 재개****※ 주의사항**

-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환기,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 유지, 참석자 명단과 사용시간 작성.
-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 오는 신자들에게 새로운 플라스틱 신자(바코드)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연희동성당 구역개편**

1구역 ~ 10구역을 1구역 ~ 20구역으로 개편

이전	현재
1~3구역	1~4구역
4, 5구역	5~8구역
4, 6, 7구역	9~12구역
8구역	13, 14구역
9구역	18, 19구역
10구역	15~20구역

※ “자세한 지도는 성당 사무실에 있습니다.”

◎ 하절기 성당시설 이용시 유의 사항

※ 하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단체회합 후에는 전등, 선풍기, 에어컨이 꺼졌는지 확인해주시고, 성당의 전기, 수도 등 모든 자원을 아껴서 사용해주세요.

※ 냉방중인 곳과 잠금장치 설치된 곳에 문을 꼭 닫아주세요.

« 주일학교 »**◎ “코로나19로 당분간 주일학교 미사는 주일학교 학생·가족·교사만 참여 가능합니다.”****◎ 2020년도 어린이 첫영성체 교리**

대상 : 초등학교 3학년~6학년 학생

교리 시작 : 8월 15일(토)

« 단체 공지사항 »**◎ 주일 오후9시 미사 반주자 모집**

문의 : 최윤희 아네스 (010-4538-5665)

« 알림 »**◎ 6월 7일 세례성사 단체사진**

ID : yeonhui6414@nate.com / 비밀번호 : 12ab12

* 내메일함 세례성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과 다음 주일은 리모델링 2차 현금이 있습니다.**◎ 성당 주변 도로에 주차 가능합니다.**

일시 : 주일 09시~12시

※ 대로변으로 주차하는데, 출입구는 막지 말고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0. 6. 28.)

총세대	책정세대	미책정세대	2020년 책정율	2020년 납부율
2,195	886	1,309	40.4%	37.4%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리모델링 기금 (6월 22일~28일)

누계 826,425,581원

◎ 감사헌금 (6월 22일~28일)

최영숙 일십만원 지은규 오만원

익 명 이십일만원 김재균 오만원

이재람 이만원 진영문 일십만원

진현수 오만원 진현주 오만원

정희숙 일십만원 익 명 오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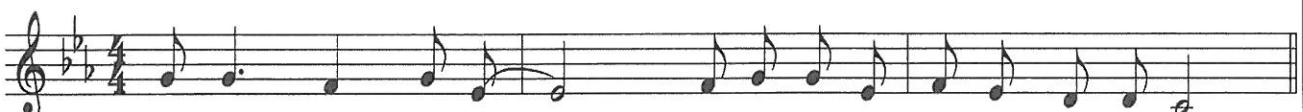
고명선 일십만원 최순애 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교황 주일)

교무금 14,063,000원 주일헌금 4,047,000원

교황주일 2차 헌금 1,800,400원

입당	287 (1, 2절)	봉헌	510, 211, 221	성체	154, 172, 165	파견	287 (3, 4절)
----	----------------	----	---------------	----	---------------	----	----------------



주 님 - 제 목 숨 -

당 신 손 에 맡 기 나 이 다

2020 새신자·쉬는 교우 찾기.

“20구역 20명씩 주님 품으로!”